

이슬람文庫 10

한국 이슬람교 중앙연합회

# 이슬람은 왜 돼지고기를 금하는가

## ISLAM ON PORK

馬 天 英 著  
徐 廷 吉 译

SCIENTIFIC RESEARCH HOUSE  
KUWAIT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1400 A.H.  
1980 A.C.

**SCIENTIFIC RESEARCH HOUSE**

**KUWAIT Fahed Salem Street  
P.O. Box 2857 Tel: 414220**

이슬람文庫 10

한국 이슬람교 중앙연합회

# 이슬람은 왜 돼지고기를 금하는가

## ISLAM ON PORK

馬 天 英 著  
徐 廷 吉 譯

SCIENTIFIC RESEARCH HOUSE

KUWAIT

## سودة البقرة

يَتَأْيَهَا النَّاسُ كُلُّوْمَا فِي الْأَرْضِ حَلَالاً طَيِّبَا  
وَلَا تَتَبَعُوا خُطُوتَ الشَّيْطَنِ إِنَّهُ لَكُمْ عَدُوٌّ مُّبِينٌ (١٦٨)

“오 ! 인간들이여, 땅 위에 있는 것 중에서 먹어도 되는 깨끗한 것을 먹도록 하라. 그리고 사탄의 발자취를 밟지 않도록 하라. 진실로 사탄은 너희의 공공연한 적이니라.”

(쿠란 2 : 168)

إِنَّمَا حَرَمَ عَلَيْكُمُ الْمَيْتَةَ وَالدَّمَ وَلَحْمَ الْخِنْزِيرِ  
وَمَا أَهْلَ بِهِ لِغَيْرِ اللَّهِ فَنِ اضْطُرَّ غَيْرَ بَاغٍ وَلَا عَادٍ  
فَلَا إِلَهَ إِلَّمْ عَلَيْهِ إِنَّ اللَّهَ غَفُورٌ رَّحِيمٌ (١٧٣)

“알라께서 너희들에게 먹지 말도록 금하신 것은 사육(죽은 짐승의 고기), 피, 돼지고기와 잡을때 알라의 이름으로 잡지 않고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잡은 것 뿐이니라.

그러나 먹고싶은 생각이 있어서 먹은게 아니라 던가, 알라(하나님)에게 죄지를 생각으로 먹은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먹었을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느니라.” (쿠란 2 : 173)

## ❖ 차 례 ❖

1. 머리말.....	4
2. 위생학과 순결성.....	5
3. 이슬람은 정서를 다듬어준다.....	6
4. 음식물의 선택.....	7
5. 돼지의 습성.....	9
6. 돼지고기에 대한 고대 중국의 견해.....	10
7. 돼지고기에 대한 현대의 견해.....	11
8. 유럽인과 돼지고기.....	13
9. 무슬림은 교리에 복종한다.....	17

## 이슬람은 왜 돼지고기를 금하는가

### 1. 머리 말

이슬람교도가 아닌 사람들은 흔히 “이슬람교도(무슬림)는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한다.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까닭은 현대인은 복합적인 문화사회와 종교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대부분이 이슬람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것은 또 현대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이슬람교도들이 이슬람을 그릇된 색채로 도장함으로써 빚어지는 심각한 오해 때문이기도 하다.

편견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슬람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그 참뜻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슬람은 가장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며 실천적인 종교이다. 이슬람은 교리의 실천가능성을 강조하여 단순히 마음의 믿음에만 그치는 것은 하등 실천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예언자 무함마드(P. B. U. H)은 말하기를 “다만 믿는 것으로 그치고 이를 실천하지 않는 자는 이슬람에는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무슬림이라면 자기의 신앙을 실천에 옮겨야하는 것이며 그것을 과학적으로 재현 함으로써 이슬람교도가 아닌 사람들이 이슬람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슬람교에 대한 교인과 교인 아닌 사람들 사이의 무지와 완고의 암우를 겉우기 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이지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무슬림은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의학서, 도덕적 전지에서 다른 중국 이슬람 시도자인 “하지 이브라힘 마천영”의 (현 마레이시아에 살고 있음) 글을 번역 출판하는 바이다.

## 2. 위생학과 순결성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를 금식시키는 이유는 위생학적인 면과 인품의 순결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조처인 것이다.

우선 청결한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이슬람을 알아 보기로 하자.

첫째—이슬람은 영혼의 순수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것을 양심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으나 “영혼의 순수성”은 양심과 구별된다.

둘째—이슬람은 파격하지 않은 운동을 가르치고 있다. “이슬람의 5주”의 하나인 예배는 가장 풀통한 형태를 가진 파격하지 않은 육체운동이다. (주 : 이슬람의 5주란—이슬람의 5대의무—즉 다섯가지 실천사항을 말한다. (1) “알라(하나님)외에 신은 없다. 무함말은 알라의 사도이나.”라는 유일신 신앙의 고백을 하고 (2) 예배 (3) 회사 (4) 단식 (5) 순례를 한다.

과학은 위생학에는 힘을 기우리고 있으나 도의심의 향상이 되는 인생수양의 중요성은 이를 등한시 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물질주의에만 주력하고 정신주의는 망각하고 있다. 물질주의와 인생수양의 향상—이 2 가지 목적의 병행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과학과 철학이 이를 등한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임시적인 것이며 언젠가는 햇빛을 보게 되리라고 믿는다.

현재의 위생학은 괴상적이고 물질주의적이다. — 인간의 내제적 자질개발은 물질과 정신 양면에서 진행시켜야 한다.

### 3. 이슬람은 정서를 다듬어 준다

어느 종교이든 다 그렇지만, 이슬람은 훌륭한 인격과 도덕에 많은 힘을 쓰고 있다. 이슬람은 성선설을 가르친다. “사람의 선악은 생후 배워서, 즉 사회에 적응하면서 그 주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선악이 가름되어 태어날 그 당시만은 결코 선한 것이다.”라는 맹자의 사상은 이슬람과 견해를 같아 한다.

과거 중국 초등교과서에서 중국 어린이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가르친 것은 “인간은 결백하게 태어났으나 환경에 따라서 선하게 되기도 하고 악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선악은 교육과 환경에 따라서 자라나는 것으로서 맹자의 가르침과 이슬람교에서의 이에 대한 차이점은 이슬람은 덕을 쌓는 방법과 악을 행하지 않게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있다.

인간에게는 식(食), 숙(宿), 성(性)의 3대욕망이 있다. 또한 행복, 노여움, 비애, 사랑, 공포, 증오, 허욕의 감정을 시니 고등동물이기도 하다. 허욕은 소유욕의 본능에 의해서 생긴다. 욕구불만은 시기심을 자아내고 시기심은 질투로 발전한다. —인간에게 생명이 있는 한 감정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이슬람은 이 일곱가지 감정의 소멸을 주장하지 않고 그 통솔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은 마치 차량의 모터와 같은 것이어서 이것을 잘 운전 함으로써 목적지로 몰고가는 것은 운전사에 달려 있다. 교육, 특히 종교 교육은 그 운전사의 역할과 같다.

#### 4 음식물의 선택

이슬람에서 돼지고기를 금하는 것은 물질주의적 교육의 제일보라 하겠다. 이 제일보는 결백한 인간성의 수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깊이 이해시켜주는 방향으로 인간을 선도 한다.

육체의 피는 생명의 흐름이며 먹는 음식이 피가 되는 것 이므로 음식과 음료를 잘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문화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음식 선택에 세심하다. 과거의 아프리카 미개인들은 식인종이었다. 말레이지아 원주민과 북부 보르네오에도 음식 선택을 할줄 모르는 인종이 있다. 그들은 범, 굼뱅이, 쥐 할것 없이 손에 잡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먹는다. 소위 인도의 불가촉천민들도 음식을 선택하지 않고 아무것이나 먹는다. 그러나 그들이 문화수준에 도달하면 음식을 골라먹기 시작한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인간은 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음식물을 골라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슬람은 자연사한 동물의 고기와 소, 양, 탄을 막론하고 싸우다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도록 금한다. 과학자들이 싸우다 죽은 동물의 피나 고기에 대하여 연구해본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무슬림은 이런 고기를 먹지 말도록 교육받아 왔다. 왜냐하면 생리학적인 면에서 독이란 악의 요소가 응결되어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슬림은 또한 사자, 호랑이, 표범, 범, 고양이, 개, 쥐, 따위의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런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인간의 성격의 정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 까닭은 음식물은 창자로 들어가서 배설물이 되기전에 뇌를 포함한 신체 각 조직에 흡

수되어 신진대사를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깨끗한 고기를 먹도록 가르치며 채식주의를 방지하지도 않고 권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고기를 먹을 땐 꼴라 먹으라는 것이다.

현대의 돼지는 깨끗한 먹이로 기르고 있으므로 돼지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깨끗하고 영양분이 많은 먹이나 아무리 깨끗한 먹이로 길렀다 해도 돼지의 성질까지를 변경시킬 수는 없는 것이며 돼지는 역시 돼지일뿐 나무처럼 접목을 해서 그 성질을 변경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 5. 돼지의 습성

돼지는 성질이 게으르고, 엣빛을 싫어하고 투지가 없다. 돼지는 거의 무엇이든 닥치는데로 먹는다. 모든 육류중에서 해로운 병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돼지고기다. 돼지고기는 또한 질병의 매개체이다. 돼지고기가 식용에 적합치 않다는 것은 이와같은 이유에서다.

## 6. 돼지고기에 대한 고대 중국의 견해

중국의 유명한 생명학자인 「탕야쇼」는 “돼지는 죽는 순간에 공포심이 심장으로 들어가며, 짐승은 죽을 때 마지막 숨(호흡)이 담으로 들어간다.”고 여기 인용한 글은 공포심에 관한 것으로서 동물은 죽을 때 마지막 숨이 심장과 담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과학자들이 이것을 긍정하지 않을 런지 모르겠으나 이 학자는 보통의 학자가 아니었다.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음에 틀림이 없다.

당나라 때의 “마오 순시”는 위대한 의학자였다. 재상벼슬을 맡아하고 받지 않았으며 그의 사후 천년동안 그를 따를 만한 사람이 없었던 위대한 의학자이자 위생학자로서 100세까지 살았다. “건강의 기록”이라는 저서에서 그는 “돼지고기는 묵은 병을 재발케 하고 류마치즘(신경통)과 해소병을 기른다”고 했다.

이분의 학설은 현대 과학자들도 시인하고 있다. 여기에 예를 든 것 외에도 돼지고기는 인체에 해롭다는 논증이 많이 있다.

## 7. 돼지고기에 대한 현대의 견해

돼지고기를 먹으면 기억력이 쇠퇴하고 머리 카락이 빠진다. 돼지고기는 대머리의 원인이 되고 기억력의 쇠퇴를 초래한다는 것은 현대과학이 규명한 바이다.

돼지고기를 파는 무주간 사람들은 대개가 비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비대하다고 반드시 건강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이것은 항상 돼지고기를 만짐으로서 돼지고기가 전해오는 병의 결과일 수도 있다.

“그伦 쉘퍼드”(Dr. Glen Shepherd)는 1952년 5월 3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린 글에서 돼지고기를 먹는데서 오는 위험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미국과 캐나다의 6명중의 1명이 선모충병균을 보유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먹음으로서 근육에 병균을 보유하고 있다. 이 병균 보유자들은 증세가 눈에 띄지는 않는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짧은 시일내에 치료가 되지 않으면 때로는 생명을 잃는 수가 있고 병신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조심하지 않고 돼지고기를 먹는데서 오는 것이다. 이 병은 면역이 되지 않으며 치료법이 없다. 이 아주 조그마한 무서운 병균을 예방하는 항생제도 약도 주사도 없다. 오로지 예방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인 것이다.

성장한 선모충병균은 길이 1/8인치, 즉 1/400인치이다. 수명 40년으로 근육세포 사이에서 번식하는 속도 뿐이지 않는 작은 병균이다. 이 병에 감염된 돼지고기를 먹으면 그 병균도 함께 소화되어 세균으로 자라나 1마리가 1,500 마리의 새끼를 낳아 2~3주후에 혈액으로 들어간다. 돼지고기를 소금에 절인다던가 불에 굽거나 해도 병균은 죽지 않는다.

도 살장에서 잡아서 포장하면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쉽겠으나 아무리 관이 검사를 잘한다해도 병균을 보유한 돼지고기를 가려낼 수가 없는 것이다.

위의 전문가의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드시 선모충병균의 보유여부를 보증할 방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일종의 도박행위이며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노릇이라 하겠다. 1967년 1월 “이슬람 리뷰지”(Islamic Review)에서 “모함말 쟈퍼”(Dr. Mohd. Jaffer) 박사는 현대적 연구방법에 의해서 발견한 돼지고기가 보유하는 16가지의 해로운 병균을 열거한바 있었다. 그가 1936년 “카이로” 대학 의과대학을 방문했을때 실험관 속에 담은 10피드나 되는 조충을 의과과장이 내보이며 “이것은 중국산이오” 하므로 “쟈퍼” 박사는 당혹하면서 “왜 하필이면 중국산을 특정참고로 하는 것이오” 하고 반문하니 그 대답은 이러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이며 조충 환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으오. 돼지가 감병의 매개체인 선모충과 장균이 가장 많은 곳도 중국이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회충표본을 중국에서 사오는 것입니다.”

## 8. 유럽인과 돼지고기

독일 사람은 그렇지도 않지만 구라파인, 미국인, 호주인은 돼지고기를 잘 먹지 않고 쇠고기를 많이 먹는다. 이태리는 “로마 캐도릭 국가”라 할 수 있는데 냉장시설이 생기기 전의 현대에는 5월~8월 사이의 돼지고기 판매를 금했었다.

다른 구라파 국가에서도 그랬었던 일이 있었고, 불란서는 이 기간동안 굴을 먹지 못하게 하고 있다. 영국도 돼지고기에 대해서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람들은 「R」자가 끼지 않은 달에는 돼지고기를 사고 팔지 못하게 제도를 만든 모양이어서, 5월(May), 6월(June), 7월(July), 8월(August) 달에는 돼지고기를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돼지고기가 해롭다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증거라 하겠으나, 그 이유에 대한 깊은 지식없이 그렇게 정했을 뿐이었다.

구라파 여러 나라들이 이달중의 육류 매매를 장려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돼지고기를 많이 먹지 않는 것은 구라파인들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이웃 일본에서도 돼지고기를 비교적 적게 먹는 사람이 많다.

### 육류의 지방표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고기 중에서 지방성이 가장 많은 것이 돼지고기다.

<u>육류별 구분</u>	<u>시방 질 함유량 %</u>
살찐 돼지고기	91 %
살찐 쇠고기	35 %
살찐 양고기	56 %
중간살 돼지고기	60 %

중간살 쇠고기	20	%
중간살 양고기	35	%
마른 돼지고기	29	%
마른 쇠고기	6	%
마른 양고기	14	%
햄	51	%

위의 표는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눈이 번쩍 뿐 만한 육류 비교의 과학적 증명이 되겠다. “돼지 뒷다리 구운 것 만큼 맛있는게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를 물고 싶다.

### 고기의 실험

나이가 같은 돼지, 양, 소의 고기를 각각 햅빛에 놓고 볼 때 돼지고기가 먼저 썩고 다음이 양고기고 쇠고기가 맨 나중에 썩는다. 그 시간 차이는 약 1시간 쯤이다. 쇠고기는 썩지 않고 말라버리는 수도 있다. 그리고 후라이판에 이 3 가지 고기를 넣고 요리를 만들면 돼지고기가 제일 나중에 이는다. 뿐만 아니라 익은 돼지고기에 해로운 병균이 있는지 보증할 수가 없다. 의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양고기와 쇠고기는 사람의 뱃속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3시간이 걸리고 돼지고기는 4시간이 걸린다.

사람이 음식을 입에 넣기 전에 음식물을 구별하는 방법을 여러모로 가르치고 있다.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본능적으로 음식을 구별할 줄 모른다. 그래서 영양학의 수준이 가장 낫다.

일반 동물은 취가을 이용할 줄 안다. 인간은 취작이 매우

발달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야 마땅하다.

식물 중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 많다. 약초도 있고 독초도 있다. 고기도 사람에게 해로운 고기가 있는 것이다. 돼지고기도 말하자면 사람을 죽사시킬 정도로 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독소가 잠재해 있다는 것은 고령의 과학자들이 증명한바 있다. 돼지고기는 다른 고기 만큼 자양분이 많지 않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리라. —“중국 사람은 먼 옛날부터 오랜 세대 동안 돼지고기를 먹어왔다. 돼지고기는 국민의 양식이며 돼지고기를 먹고 살아 왔어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다”고 그러나 중국 국민은 부득이 체식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국 총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은 돼지고기를 1년에 한 3번 정도밖에 먹지 못한다. 그 세번이란 설날, 단오절, 추석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중국 농민은 1년에 돼지고기 3근 밖엔 먹지를 못했었다. 그것도 현재의 공산치하에서는 1년에 1근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사람의 주식물의 하나가 두부다. 파, 마늘은 북부 중국인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돼지고기가 중국 사람들의 주식물의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매일 먹는 음식은 아니다. 중국 사람은 돼지고기에서 전염되는 질병에 걸려있다고 말하는 의사들의 보고는 진실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바뀌어졌다. 중국인은 무지해서 돼지고기를 먹어 왔었으나 현대과학은 돼지고기가 비위생적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음식물을

바꿔야할 일이다.

중국 무슬림(회교도)과 비무슬림(비교도), 중국인을 비교해 보면 무슬림이 귀가 2인치 크고 훨씬 건강하다.

비교도 중국인들이 일찍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땐 고기를 먹어 왔더라면 오늘날의 그들 육체적 조건이 타민족 보다 멀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수신재가치국평천하의 가르침을 성취하였을 것이다.

독자들이 “이슬람은 왜 돼지고기를 금하는가?”에 대한 여러가지 실례를 읽고도 아직도 속이 후련하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말할 길이 없겠으나 다음의 한탄 귀절을 읽어달라고 부탁하는 수 밖에 없다.

야담이지만 한국동란때 우리나라에 주둔했던 토이기 군인들(이슬람 교도였다)은 유엔군에서 받은 보급품 속에서 돼지고기 통조림은 땅을 파고 물어 버렸다고 한다.

## 9. 무슬림은 교리에 복종 한다

무슬림이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슬림은 쿠－란과 “무함말의 어록을 성실하게 믿기 때문이다. 쿠－란에 신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오 ! 인간이어, 땅 위에 있는 것 중에서 먹어도 되는 깨끗한 것을 먹도록 하라. 그리고 사탄의 발자취를 밟지 말도록 하라. 진실로 사탄은 너희의 공공연한 적이니라.”(쿠－란 2:68)

“알라께서 너희에게 먹지 말도록 금하는 것은 사육(죽은 짐승의 고기), 피, 돼지고기와 삽을 때 알라의 이름으로 삽지 않고 다른 이름을 부르고 삽은 것 뿐이니라.

그러나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먹은게 아니라던가 알라(하느님)에게 죄지울 생각으로 먹은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먹었을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느니라.”(쿠－란 2:173)

이 쿠－란 귀절은 조물주(알라)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모든 무슬림은 이에 무조건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무슬림이 교리에 복종함은 군인이 군에 무조건 복종하여 국법에 순종함과 같은 것이다.

이 쿠－란 귀절에 “할 수 없이 먹었을 경우에는”이라는 말씀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아상태에 있을 때 돼지고기 이외의 다른 음식물이 없을 시 이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돼지고기를 먹도록 총칼로 위협을 한다면 불가피 이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슬림이 우상숭배를 강요 당했을 경우 무슬림은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

무슬림이 자존심을 버리고 돼지고기를 먹는다면 그는 주의 주장의 신념이 없는 가치없는 사람인 것이다. 그러한 무

슬림은 파렴치하고 죄 많은 무슬림이 되는 것이다.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돼지고기를 먹는 무슬림을 경멸한다.)

무슬림이 할 수 없이 강제에 못이겨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는 죄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돼지고기를 먹으면서도 무슬림이라 자처하는 사람은 큰 죄를 짓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힌두교도들이 쇠고기를 먹지 않는 것과 무슬림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다. 힌두교도는 소를 신성시 하지만 무슬림은 태지를 멸시한다.

내가 1943년 12월과 1967년 10월 가족과 함께 ‘칼캇타’에 가 있을 때 “벵갈” 지방에서 수천명의 피난민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것을 내 눈으로 본 일이 있는데 수많은 피난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한편에는 임자 없는 성우(聖牛)들이 거리와 언덕을 메우고 있었다. 성우들도 아사지경이었다.

(1967년도 인도에는 늙은 소의 수효가 9,400만 마리였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소에 손을 댈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고, 소를 잡아서 인명을 살리거나 최소한 소를 팔아서 쌀이나 밀을 사들이자고 제창하는 사람이라곤 없었다 전세계 소의 ¼이 인도에 있다 한다.

---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이슬람교만이 아니라 유태교에서도 먹지 않는다.

쿠－란 귀절의 “땅 위에 있는 것 중에서 먹어도 되는 깨끗한 것을 먹도록 하라”와 “사탄의 발자취를 밟지 않도록 하라”는 두 귀절은 전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리라.

그러나 이 두 귀절을 심사숙고하면 두 귀절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다. 이 귀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연이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취하는 것을 마시지 말라, 하는 쿠－란 귀절은 내적 표현인 동시에 외적 표현인 것이다. 이 양면표현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이해하느냐 못 하느냐는 각자 읽는 이에 달렸다.

회의에 대하여 예언자 무함말(P. B. U. H)은 이렇게 말했다.：“합법성 여부에 대하여 회의를 품게 될땐 너의 내부의 소리(령피)에 물어보라.” 이것은 인간의 양심이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구별한다는 뜻이다. 무슬림은 쿠－란이 조물주의 말씀임을 공언한다.

===== 안 =====

내 =====

\* **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 : 서울중앙사서함 2865

☎ 794-7307 · 793-6908

\* **부산지회** : 부산직할시 중앙동 4 가 77-3

☎ 44-3506

\* **사우디지회** : Haji Ibrahim Jeon, P. O. Box 6720  
Jeddah, Saudi Arabia.

☎ 50020

이슬람을 보다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기 주소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슬람文庫 10

**이슬람은 왜 돼지고기를 금하는가**

비매품

발행일 : 1978. 7. 20

편집인 : 한국이슬람교 중앙연합회 선교부

발행인 : 한국이슬람교 중앙연합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32-21

중앙사서함 2865 전화 : 794-7307, 793-6908

인쇄처 : 한국문화인쇄사 : 777-3930 · 3931

١٤٠٠  
هـ  
م ١٩٨٠

دار البحوث العالمية للنشر والتوزيع

شارع فهد السالم - عمارة الاوقاف رقم ٤  
هاتف ٤١٤٢٢٠ - ص. ب. ٢٨٥٧ الكويت

سلسلة الرسائل الإسلامية  
١٠ اتحاد المسلمين الكوريين

# أحكام الخنزير في الإسلام

دار البيوث الفلبينية

سلسلة الرسائل الالسلامية ١٠  
اتحاد المساهمين الكورسرين

# أحكام الخنزير في الإسلام

دار البيوث العلمية